아산시, '다가치교육센터' 내달 6일 오픈

옛 신창중학교 건물 리모델링
교육·문화·복지 복합거점공간
다문화 학생등 교육프로 운영

충남 아산시가 서부권 복합거점 공간인 '아산 다가치교육센터'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오는 7월 6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아산 다가치교육센터(이하 센터)'는 아산시가 신창면 서부남로 667번길 70에 위치한 옛 신창중학교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 조성한 교육·문화·복지 복합거점시설이다.

센터는 대지 2만8482㎡, 연면적 5174.9㎡ 규모로, 기존 건물 6개동을 활용했다.

센터 명칭은 시민 공모를 통해 확정됐으며, '다양한 가치'와 '다같이'의 의미를 담아 다양한 배경의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교류하는 서부권 복합거점공간을 지향한다.

시는 지난 5월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시범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센터 조성은 시가 2024년 2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본격 추진됐다.

시는 서부권 지역에 부족했던 청소년·주민 교육공간을 확충하고, 폐교 활용에 대한 주민 요구와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센터는 청소년과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활동 공간이자,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 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서부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한편, 청소년·다문화가정·지역 주민 등 전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아산시청소년재단 신창청소년센터 ▲아산시평생학습관 서부배움터 ▲아산가족센터 신창분원 ▲아산교육지원청 다문화교육센터 등 4개 기관이 입주해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운영은 오는 7월6일부터 9월17일까지 약 두달간 진행된다.

이 기간 각 입주기관은 청소년 역량 강화 및 문화 프로그램, 주민 평생학습 강좌, 다문화 학생과 외국인 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중도입국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등을 운영하며 시설과 서비스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산=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청소년이 직접 유해환경 지도 만든다

서초구, 서초高 학생들 '커뮤니티 매핑' 참여
흡연·음주 조장·보행 안전위협 요소등 확인

서울 서초구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서초유스센터와 함께 '청소년 건강·유해환경 커뮤니티 매핑' 활동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커뮤니티 매핑'은 청소년이 직접 스마트폰으로 학교 주변과 생활권의 건강·유해환경 정보를 수집해 지도에 표시·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활동이다.

서초구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이번 활동은 서초고 1·2학년 20개 반 총 549명을 대상으로 총 2회차로 진행된다. 1차 활동은 지난 5월29일, 1학년 10개 반 287명이 참여해 진행을 마쳤고, 2차 활동은 오는 12일, 2학년 10개 반 262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각 회차는 오후 1시10분부터 3시까지 전문교육과 현장활동으로 나눠 진행된다.

먼저, 학생들은 커뮤니티 매핑 전문강사의 지도하에 ▲청소년 유해환경 모니터링의 중요성 ▲유해환경 개선 사례 ▲시스템 이용 방법 ▲현장 안전수칙 등을 배운다.

이어 학교 주변을 구역별로 점검하며 흡연·음주 조장 요소, 보행 안전 위협 요소, 건강환경 유해 요소 등을 확인하고 수집된 유해환경은 보건소 건강부모e음 포털의 '청소년 건강유해환경 ZERO'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개선 요청으로 연계된다.

활동 후에는 사후 인식 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프로그램 효과를 점검한다. 또, 학교 차원에서 자원봉사 시간도 인정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활동이 학교 주변의 유해요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1일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찾아가는 적극행정 순회 교육'이 진행 중인 모습.

파주시, 16~18일 대학 계열별 입시설명회

수시·체육·미술계열 순차 진행
현직 교사들 참여해 전략 제공

경기 파주시는 지역내 학생과 학부모들의 대입 준비를 돕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총 3회에 걸쳐 '2027학년도 대학 계열별 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변화하는 대학입시 제도에 대한 정확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입시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전형별 특성을 반영해 수시전형, 체육계열, 미술계열로 나뉘 운영된다.

설명회는 매일 오후 7시에 시작되며, ▲16일 수시전형(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 ▲17일 체육계열(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 ▲18일 미술계열(문산행복센터 소공연장) 순으로 일자별로 계열을 달리해 진행된다.

공교육 현장에서 풍부한 진학지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현직 교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최신 입시 자료와 실제 진학지도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입시 전략과 준비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행사 당일까지 가능하며, 시청 또는 시 진로진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홍보물 내 정보 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입시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정보 수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가 수험생들의 진로 설계와 효과적인 입시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조영환 기자 cho2@siminilbo.co.kr

국민 체감 적극행정 사례 공유·확산

경기도교육청, 순회교육 돌입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도민의 편익을 더 높이기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1일 의정부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오는 9월21일 연천교육지원청까지 도내 12개 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직원 17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적극행정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직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를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행정 개념과 필요성 ▲사전 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지원제도 활용 방법 ▲소극적 업무태도 개선을 위한 소극행정 개념·유형 및 예방 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우수공무원 선발·우대 조치 안내 등으로 실무에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선례를 답습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공직자 스스로 문제를 찾고 창의적·전문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교육에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 실효성을 높인다.

수원=임종인 기자 lim@siminilbo.co.kr

용산구, 오는 17일 대입 진학 심포지엄

공교육 현장 전문가 3명 참여
대입제도 변화 주요쟁점 발표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오는 17일 오후 6시30분 용산아트홀 1층 소극장 가람에서 2026년 용산구 진학 심포지엄 '제3회 용산진학 길라잡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춰 '2028학년도 대입 방향성'을 주제로 마련됐다.

특히 대부분의 자치구가 진학 프로그램을 단순 설명회 중심으로 운영하는 반면, 구는 전문가 발제와 심층 질의응답이 결합된 소통형 '심포지엄' 형식으로 행사를 마련해 차별화를 뒀다.

발제에는 공교육 현장 전문가 3인이 참여해 대입제도 변화의 주요 쟁점을 짚는다. 오산고등학교 이민규 교사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학생부 기록의 변화', EBS 대표강사인 송의여자고등학교 정제원 교사가 '2028학년도 대입의 특징과 학생부위주 전형', 상문고등학교 박찬욱 교사가 '2028학년도 통합 수능과 수능위주 전형'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60분간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참가자들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와 관련한 궁금증을 전문가에게 직접 묻고 답변을 들을 수 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이 대학별로 공개되고 있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가 대입제도 변화의 흐름을 조기에 이해하고 준비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대상은 지역내 거주하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 200여명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신청은 오는 11일 오후 4시까지 '용산진학패스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박희영 구청장은 "입시 정보의 격차는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행사가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맞춤형 진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용산구는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진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노인가구 낙상 예방용품 지원

광진구, 가구당 최대 50만원

서울 광진구는 낙상사고에 취약한 노인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낙상 안심 생활환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낙상 및 안전사고 예방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물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110명으로, 가구당 최대 50만원 상당의 물품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물품은 ▲미끄럼방지매트 ▲안전손잡이 ▲욕실 미끄럼방지 바닥시트 ▲침대 안전손잡이 ▲지팡이 등 총 16종으로 구성된다.

특히 반지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에는 화장실 미끄럼방지매트와 안전손잡이 등을 우선 설치해 노인들이 살던 집에서 생활 속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대상자는 동주민센터와 민간 돌봄기관 추천을 통해 선정하며, 수행업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낙상 위험도를 확인한 뒤 주거환경에 맞는 물품을 설치한다. 이와 함께 노인 대상 낙상예방 교육과 간단한 운동 지도도 함께 진행한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중학생 동아리 활동 통해 진로 탐색

동대문구 '와락', 와플프로 운영
미디어 제작·파티시에등 실습

서울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이 지역내 중학생의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와플(진로동아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와플'은 학생들이 관심 있는 직업 분야를 동아리 활동으로 꾸준히 경험하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확인하는 진로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지역내 6개 중학교 진로동아리가 참여해 미디어 제작자, 파티시에, 이모티콘 작가, 요리사 분야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일회성 직업 체험이 아니라, 학교별로 하나의 분야를 정해 기초부터 심화 과정까지 단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학생들은 전문 강사와 함께 직업의 역할을 이해하고, 직접 실습하며, 자신만의 결과물을 만들어보는 과정을 경험한다.

미디어 제작자 분야에서는 영상 기획, 촬영, 편집 등 콘텐츠 제작 과정을 배운다. 파티시에 분야는 제과·제빵 기초 실습과 디저트 제작 활동으로 운영된다. 이모티콘 작가 분야에서는 캐릭터 구상과 디지털 드로잉을 통해 창작 과정을 익히고, 요리사 분야에서는 다양한 조리 실습을 통해 식문화와 직업 세계를 함께 이해한다.

학생들은 프로젝트형 활동을 통해 직업을 막연히 알아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해보며 자신에게 맞는 분야인지 탐색하게 된다. 관심 있는 일을 조금 더 깊이 경험하는 과정에서 진로 선택에 필요한 자신감과 표현력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걷기지도자 과정 9일 개강

도봉구, 5일까지 수강 접수

서울 도봉구가 주민들의 건강한 걷기 문화 확산을 위해 걷기지도자 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매주 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도봉구보건소 7층 대강당에서 총 4회, 16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청은 오는 5일까지 도봉구보건소 보건정책과로 전화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교육비는 무료다.

문민호 기자 mmh@siminilbo.co.kr

간추린 뉴스

영등포구,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5일 개최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다양한 예우·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5일 영등포 아트홀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가족, 지역 주민 등 약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가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웅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유공자 표창 수여와 함께 샌드아트, 퓨전 국악, 뮤지컬 등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에는 반공 순국 용사 위령탑(신길동20-4)에서 유가족과 보훈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령의 넋을 기리는 위령제가 거행된다.

이어 6일 제71회 현충일에는 국립현충원을 찾는 보훈가족과 구민들을 위해 수송 버스를 전격 지원한다.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의정부시, 청년성장 취업준비·체험프로 운영

경기 의정부시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 향상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청년성장프로젝트' 6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내를 생활권으로 하는 15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실질적인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경우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예정자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미취업·구직 청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청년고용정책과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과정은 ▲아로마 향수 만들기 ▲취업 성공 포트폴리오 전략 클래스 ▲함께 배우는 소자본 창업 ▲영어 인터뷰 기초 훈련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이끼볼&행잉그물 만들기 ▲부모교육 ▲청년 취업상담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첨삭 클리닉 ▲실전 면접 대비 코칭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푸드트럭협회 기부금 전달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은 1일 구청장실에서 '2026 불암산 철쭉제 푸드트럭 운영업체 기부금 전달식'을 했다. 사진은 전달식에서 오 구청장(가운데)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구로구, 고립위기 청년 '건강 소비습관' 등 맞춤 강연

서울 구로구가 고독·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건강한 소비 습관 형성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강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강의는 구청 3층 참의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합리적인 청년 소비생활', '청춘의 숨고르기·스트레스 관리전략' 등 2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먼저 '합리적인 청년 소비생활' 강의는 오는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강의에서는 ▲월 생활비 파악 및 현금흐름 관리 ▲생활비 지출을 줄이는 실천 방법 등을 다루며, 국민연금공단 전문강사 조연하 강사가 진행한다.

이어 7월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 '청춘의 숨고르기·스트레스 관리전략' 강의에서는 ▲스트레스의 원인과 증상 이해 ▲스트레스와 우울증의 관계 ▲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한다.

강의는 국민연금공단 전문강사 이병석 강사가 진행한다.

박소진 기자 zini@siminilbo.co.kr

홍성군, 4일부터 중장년 평생교육이용권 2차 접수

충남 홍성군은 중·장년 성인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오는 4일부터 '충남 평생교육이용권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4일부터 15일까지이며,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 기준 홍성군에 주소를 둔 40세부터 64세까지의 군민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우선 선정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 35만원이며, 지원범위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교재비·재료비를 지원한다.

이용권은 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가능 기관은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최복규 기자 cbg@siminilbo.co.kr

인천 계양구 드림스타트, 아동 심리치료 후원 협약

인천 계양구가 최근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정서 발달 지원을 위해 마음소리음악언어연구소와 심리치료 지원 사업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발달 지연과 심리 불안 등을 겪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이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마음소리음악언어연구소는 상담(치료)비의 일부를 후원하며, 양 기관은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 형성과 문제행동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동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후원에 참여한 전미경 대표는 "정서적·심리적 불안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아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아이들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